

발효사료, 물양 조절로 유해균 덜 자라

농진청, “쌀겨 100kg당 물 30리터 정도 넣으면 일반세균 99% 이상 줄어”

가축의 발효사료를 만들 때 물 양만 잘 조절해도 대장균과 잡균 등 유해균이 덜 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덩고 습한 여름철 안전하게 발효사료 만들고, 보관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발효사료는 원료사료(쌀겨, 배합사료 등에 유산균, 효모 등 유용미생물과 물을 넣어 만들며, 주로 소, 돼지, 닭 등에 먹인다. 고품질의 발효사료를 일반사료에 섞어 먹이면 소화기 잘 되고 체중이 증가하는 등 생산성이 좋아진다. 기존에 발효사료를 접해보지 않은

농장에서는 물을 적게 넣는 경향이 있는데,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발효사료를 만들려면 반드시 유산균과 함께 적당한 양의 물을 넣어야 한다. 물을 넣으면 배양과정 중에 유산균이 불어나면서 병원성 세균이나 잡균이 잘 자라지 못한다. 연구진이 쌀겨 100kg에 액상유산균 1리터, 물 30리터 정도를 넣어 발효사료를 만든 결과, 물 15리터·20리터를 넣었을 때에 비해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고 일반세균은 99% 이상 줄어 들었다. 한편, 사료에 들어가는 유용미생물

은 유통일자를 확인하고 액상유산균은 냉장고에 보관하며 되도록 2주 이내의 신선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료의 배양 온도는 30~37℃가 적당하며 여름철에는 사료제조기 온도를 30℃로 맞추는 것이 좋다. 바깥온도가 35℃정도면 제조기가 있는 창고 안의 온도는 올라가는데 40℃ 이상이면 미생물이 자라기 어렵기 때문이다. 발효는 보통 30℃에서 2일~3일 배양하며,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면 특유의 상큼한 알코올 냄새가 나는지 맡아본다.

사료를 다 만든 뒤에는 발효사료 제조기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가장 자리에 붙어 있는 찌꺼기를 없앤다. 농가에서 직접 만드는 발효사료는 축사 주위 위생환경에 따라 주변 미생물에 쉽게 오염되므로 환경을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김동은 농업연구관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사료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계절이므로,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발효사료를 만들어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남원원협-동김제, 전국 우수농협 선정

6차산업 제품 지역농협 로컬푸드마켓서 판매 선도

남원원에농협과, 동김제농협이 2017년 상반기 농업인생산기업 제품 판매 전국 우수농협에 선정됐다. 이들 농협은 농촌 경제의 경기침체와 고령화 등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농촌지역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6차산업 제품을 지역농협 로컬푸드마켓에서 선도적으로 판매했다. 특히 남원원에농협은 지난 2015년 5월에 로컬푸드직매장(200평)을 개점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친환경유류조직 육성해 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도지사가 지정 관리하는 전라북도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에 선정 된 바 있다. 또한 동김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은 2015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6차산업 경진대회 경영체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북농협은 농업인 생산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지난 6월 전북 6차산업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해 제품의 판로확대에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협유통 전주점 등 안테나숍 3개점포를 운영하고 수도권 등지에서 6차산업 판촉전 개최 등으로 전북6차산업 우수제품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에 힘쓰고 있다. 전북농협 강태호 본부장은 “간강한 장바구니, 전북 농촌 6차산업이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북 농촌 6차산업 우수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농업인 소득 5,000만원 시대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탄소 벤처창업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나선다

도내 10개 기업 선정... 데스밸리 극복·중소·중견기업으로 발돋움

전주시가 주력산업인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벤처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나섰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메디휴와 씨디엘 등 도내 창업 후 7년 미만인 탄소 벤처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 등 10곳을 올해 탄소복합재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술원이 전주시와 전북도의 지원을 받아 수행중인 탄소복합재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도내 탄소창업기업에 대한 시제품제작지원과 마케팅지원 등을 통해 일명 ‘데스밸리’(Death-Valley, 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중소·중견기

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원 사업이다. 이를 위해, 기술원은 지난날 신청 접수 및 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메디휴 등 10개 기업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올 연말까지 약 5개월간 우수아이템 조기 상품화를 위한 기술멘토링과 시제품제작지원 등 총 1억8000만원의 사업지원금을 받게 된다. 선정된 기업 중 (주)메디휴는 탄소 섬유를 활용한 고강성 EMI(전자파) 차폐 소재 약시치료 안경 개발에 나선다. 또, 씨디엘은 탄소복합재(CFRP) 색소폰 하드 케이스 시제품을 제작해

상품화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특히 참여기업들은 사업비 지원 및 기술원의 풍부한 탄소관련 인프라를 활용해 활성탄소(섬유)기반 고성능 수처리 필터, 탄소발열 순간온수기, 서스펜션 카본 지팡이, 상수도 기능성 밸브 및 동과방지 계량기 보호통 등 탄소산업을 활용한 시제품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선정 기업들이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시장에서 통하는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이끌어갈 경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시제품제작지원사업으로 인해 벤처창업기업들의 제품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 도움을 주고, 상품화를 촉진시켜 수혜기업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나아가 탄소밸리극복사업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제품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씨디엘 조성우 대표는 “현재 첼로케이스를 판매중이고, 바이올린케이스를 양산하기 위한 준비 중”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색소폰케이스를 시제품으로 제작함으로써,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세계적인 탄소 악기케이스 전문회사로 발돋움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시니어기술창업센터 ‘모의투자경진대회’ 개최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자금 확보와 새로운 최신 투자기법의 공유, 창업분위기 활성화 조성 등을 위한 전북시니어기술창업센터 ‘모의투자경진대회’가 1일 전주 더플라츠 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북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의 지원을 받고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실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전도시니어기술창업센터’의 ‘실전창업교육’ 커리큘럼의 일환이다. 이날 ‘ATOZ MEDITEC’의 정광수 대표를 비롯한 5명의 (예비)창업자들은

실전을 방불케하는 모의투자 경진(競進)을 통해 각기 아이템의 사업성을 판단하고 엔젤 캐피탈 투자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이상우교수를 비롯한 5명의 모의투자 엔젤 투자자들은 각각의 프리젠테이션과 사업기획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꼼꼼한 사업화 모델링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전북시니어기술창업센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진원 소상공인팀(063-717-1321)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국도정보공사-교통대, 자율주행기술 업무협약 체결

한국국도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은 1일 한국교통대학교와 자율주행 정보수집과 제공,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자율주행을 위한 3차원 고정밀지도 개발과 표준화, 고정밀 위치 측위 기술 개발, 자율주행 기술 연구와 실용화 서비스 구현, 전문 인력 교류, 미래 유망기술 분야 R&D 공동기획 등을 주요내용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인재용 기자

공간정보연구원 차득기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율주행 분야 3차원 공간정보기술 개발과 신개념 교통서비스 모델이 빠른 시일 내에 실용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간정보연구원은 고정밀전자 지도를 제작해 자율주행 셔틀버스에 탑재할 계획이며, 한국교통대학교는 올해 후반기부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본격적인 시범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전개공,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등급’ 달성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7년(2016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북개발공사가 2년연속 최우수등급(가등급)을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공기업에 대상으로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분야 등 주요성과를 측정해 평가결과를 5등급(가~마)으로 발표하고 있다. 도시개발공사 군에 속한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15개 광역 도시개발공사 중 자본금과 인력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실적이며, 2년연속 달성했다는 데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평가된다. 특히, 특·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광역시도 단위 개발공사가 최우수등급을 획득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전북개발공사가 최초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만성지구 분양호조와 1,998억의 매출달성 등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리더십,전략 등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더불어 지역업체 참여를 제고와 지역경제 사용을 극대화 노력, 농어촌 임대주택 확대전달 등 공익사업 추진노력도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거 같다”고 말했다. 고재찬 사장은 “2년연속 최우수등급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전북도 민선6기 핵심과제에 재투자 하고, 문제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지역사회 공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지방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